

제3강 임원의 교회생활

개체교회의 평신도 임원은 「교리와 장정」의 '제3편 2장 교회'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1. 집사의 직무와 역할

‘집사’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어 디아코니오(diakoneo)에서 유래한다. 이 말은 ‘섬기는 사람’ 또는 ‘안내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집사는 목사를 도와주고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는 일꾼이다. 전통적으로 집사는 성직자라기보다 봉사 사역자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집사의 역할은 봉사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임원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직분이다. 교회 선교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임원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하다.

1) 집사의 자격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집사의 자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집사의 선출 방법은 위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집사의 직무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집사는 교회에서 맡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잔 손길이 가는 많은 일들에 신경 써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배를 위한 전 과정에서 안내자로서 일반 회중 돕기, 예배 전후 주차 관

리하기, 교회 내 예배와 만남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새신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하기, 전도하기, 교회 건물 보수와 관리하기, 교회 건물이 예배와 모임에 적절하도록 준비하기 등이 있다.

3) 집사의 자세 (딤후 3:8~13)

집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덕과 영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딤후 3:9),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딤후 3:10)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집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이 요구되며 집사는 교회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무와 그 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① 집사는 단정해야 한다.
- ② 집사는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 ③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집사는 도덕적인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 ⑥ 집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4) 집사의 사명

교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집사는 섬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노력해서 이 자격을 구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집사는 사역자들이 지역 교회와 교회 기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집사의 사명 목적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다. 집사는 사역자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일꾼 집사는 복음 이해와 선교 사명, 헌신적인 봉사 등에 사도들과 같은 좋은 영향을 남겼다.

- ① 역량에 따라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부서의 임무를 분담한다.
- ② 집사는 해마다 당회에서 선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임기가 1년이다.
- ③ 집사는 임원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 ④ 집사는 교회 각 부서에 동참하여 책임 있게 봉사하여야 한다.
- ⑤ 집사는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딤후 3:13)

2. 권사와 직무의 역할

한국 교회에서 권사는 영성과 희생적인 봉사의 대명사로 통한다. 권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직분자다.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택하되, 입교인 수가 15명 이하인 교회라도 권사가 없을 때는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권사 제도는 외국에는 없고 한국 교회에만 있으며, 감리교회는 남녀가 다 임명받으나 장로회에서는 여자로만 제한한다.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권사의 자격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권사의 자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미만인 자
-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권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 ② 신자들은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격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3) 권사의 자세

- ① 자기가 맡은 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②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 ③ 교회에 보람 있는 유산을 남겨 놓아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꼭 유지해야 한다.

① 신앙의 자세

- ㉠ 주일을 잘 지키는 자세(사 58:13~14)

- ㉠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요4:24)
-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한 자세(엡3:7~8). 지금 바로 내 앞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분을 위하여 나는 무슨 일인들 못하겠으며, 또한 얼마나 정성껏 그 일을 감당해 내겠는가? 바로 이처럼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야 한다.

② 정신적 자세

- ㉠ 자원함으로 하는 자세(벧전 5:2)
- ㉡ 주인의 자세, 주장하지 않는 자세(벧전 5:3)
- ㉢ 떨리는 마음의 자세(출 3:6, 딤후 1:12)
- ㉣ 믿음으로 하는 자세(약 1:5)
- ㉤ 전심전력으로 하는 자세(딤후 4:15)

③ 모범적인 자세

- ㉠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딤후 4:12)
- ㉡ 십일조 헌금의 본이 되는 자세(말 3:8~12)
- ㉢ 성경 연구에 본이 되는 자세(시 1:1~2)
- ㉣ 가정 예배에 본이 되는 자세(행 16:14~15)
- ㉤ 생활에 본이 되는 자세(딤후 3:7)

4) 권사의 사명

권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맛보듯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품으면서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원만함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권사들의 팀워크를 통해 강력한 영적 진지가 구축될 때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권사는 목회자와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사려 깊은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 ①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한다.
- ② 심방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 ③ 심방 시 물질에 깨끗해야 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며, 신앙으로 인도해야 한다.
- ④ 사랑의 봉사가 되어야 한다. 봉사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4. 장로의 직무와 역할

1) 장로의 자격

「교리와 장정」에서 규정한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40세 이상 된

이로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 기획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당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 장로로 피택된 이
-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2) 장로의 직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장로의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깨닫고 오직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고전 4:1~2)

① 조화(調和)를 잘 이루는 일이다.

개체교회의 조직을 형성하는 구성원은 일반 신도, 임원, 교역자다. 이렇게 조직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 신도(임원이 되기 전)와 임원 사이, 그리고 일반 신도와 교역자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교회의 제반 문제는 임원과 교역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장로와 교역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장로는 일반 신도와 교역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이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다.

② 협력(協力)하는 일이다.

협력(Cooperation)은 ‘Co’(~와 같이, ~와 함께)와 ‘Operation’(움직인다, 운영한다)의 합성어다. 협력이란 너와 내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서로의 힘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철저히 협력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장로의 직무 중에 ‘담임자를 도와서’라는 구절이 이를 의미한다.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와 팔을 좌우에서 부축하여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직책이다.(출 17:8~15)

③ 행정 관리자(管理者)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움직이는 유기체이기에 조직이 필요하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행정에 장로의 참여와 관리는 절대적이다. 담임자는 교회 행정의 책임자(제38조 2항)이며, 그 행정이 잘되게 하는 일은 장로의 주요 직무 중 하나다. 교회는 독선이나 독재를 배제하고, 주요 권한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각

자 맡은 역할과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장로는 교회 운영에 행정적인 중간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④ 공정한 치리자(治理者)가 되어야 한다.

감리교회의 의회 가운데 당회에는 교인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고, 연회에는 목사에 대한 치리권이 있다. 또한 총회에는 헌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 장로는 교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며, 교리적인 범죄나 치명적인 범죄로 영적 혼란을 가져오는 이가 있을 때에는 교회의 권위와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임자와 협력하여 공정한 치리를 해야 한다.

⑤ 교회의 신령상 형편(形便)을 살피야 한다

장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잘 살피야 한다.

-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靈的)인 면을 살피야 한다. 신령한 눈을 가질 때 다른 이의 형편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령한 눈을 가질 때 다른 이의 형편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교인들을 심방하고 돌보아야 한다. 교인들의 실정을 알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방이 필요하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하였다.
- 셋째, 교인들의 사정을 목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장로는 언제나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좋은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⑥ 모든 성도에게 모범(模範)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고 하였다. 장로는 교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언행일치(言行一致)로 덕을 세워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 생각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서양적언에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신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장로는 항상 생각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로는 예수님의 생각(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존경하는 마음, 좋은 것만 보려는 마음, 가능한 것만 보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㉞ 말(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4)고 하였다. 말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 좋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좋은 말이 뒤따르게 됨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거짓된 말(잠 6:12), 험담(잠 26:22), 불평(민 12:2), 이간질(잠 16:28)이며, 반면에 꼭 해야 할 말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이다. 장로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여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㉟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장로는 생각과 말에 모범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삶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적인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할 수 있다(Can) : 장로는 모든 일에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로버트슐러 목사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하였다.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 해야 한다(Must) :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이는 책임의식을 뜻한다. 장로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주장하기 전에 의무라는 책임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
- 희생한다(sacrifice) : 누구도 희생 없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희생 없는 책임의식은 의미가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3) 장로의 자세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영적·도덕적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5~9절에 명시한 장로의 자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① 성결해야 한다. :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

㉠ 흠이 없어야 한다.(딤후 2:2, 딤후 2:21, 벰전 5:3)

㉡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 신중할 줄 알아야 한다.(딤후 1:9)

㉣ 단정해야 한다.

㉤ 의로워야 한다.(마 5:20)

㉥ 거룩해야 한다.(고전 5:9~10)

② 가정생활에 충실(忠實)해야 하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와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처소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며 세우는 일은 장로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장로는 가정생활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결혼생활에서 이혼을 금하며, 온 가정이 인가귀도(引家歸道)되어야 하며, 가정에서 인격과 생활을 인정받고 지지받아야 한다.

㉠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딤후 3:2) :

장로는 아내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

㉡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딤후 3:4)

장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을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엡 6:4). 또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야만 교회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다.

③ 사회적으로 인정(認定)받아야 한다

장로의 생활은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위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15~16)고 했다. 장로는 신앙생활과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누구의 비방도 받지 말아야 한다.

㉢ 다투지 않아야 한다.

장로는 모름지기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마 5:9)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혈기를 내는 미움(잠 10:12)과 교만(잠 13:10), 미련함(잠 18:6)으로 다투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

㉣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딤후 3:3)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고 했다.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장로(행 11:30)이기에 돈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물질에 대해 청렴결백해야 한다.

㉤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남을 멸시하는 생각뿐인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의 협동심을 깨뜨리고 만다. 베드로는 “주장하는 자세로(벧전 5:3) 일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 선행을 사모(思慕)해야 한다.

장로는 악한 데로 치우치지 않고 선을 좋아하며 행해야 한다. 항상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결심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9~10)고 했다.
장로는 선한 일에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 장로의 사명

그렇다면 장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장로의 직무를 살펴보자.

-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 ④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 ⑦ 직무 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